1719년, 단 1년 만에 20조 원을 벌어들인 무명의 경제학자



300년 전, 유럽 전역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버블에 휩싸였을 때, 한 남자는 조용히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캔틸런. 그는 어떻게 모두가 광기에 빠져있을 때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현재 가치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20,000,000,000,000원

NotebookLM

모든 것의 시작: 파산 직전의 왕국, 프랑스





루이 14세가 남긴 유산은 영광이 아닌 빚더미였습니다. 스페인과의 오랜 전쟁 (1701-1714)은 프랑스 재정을 파탄 냈습니다.

- 총 부채: 20억 리브르
- 연간 재정 흑자: 단 300만 리브르 (부채의 이자도 감당 못 할 수준)

(1701-1714)은 프랑스 재정을 파탄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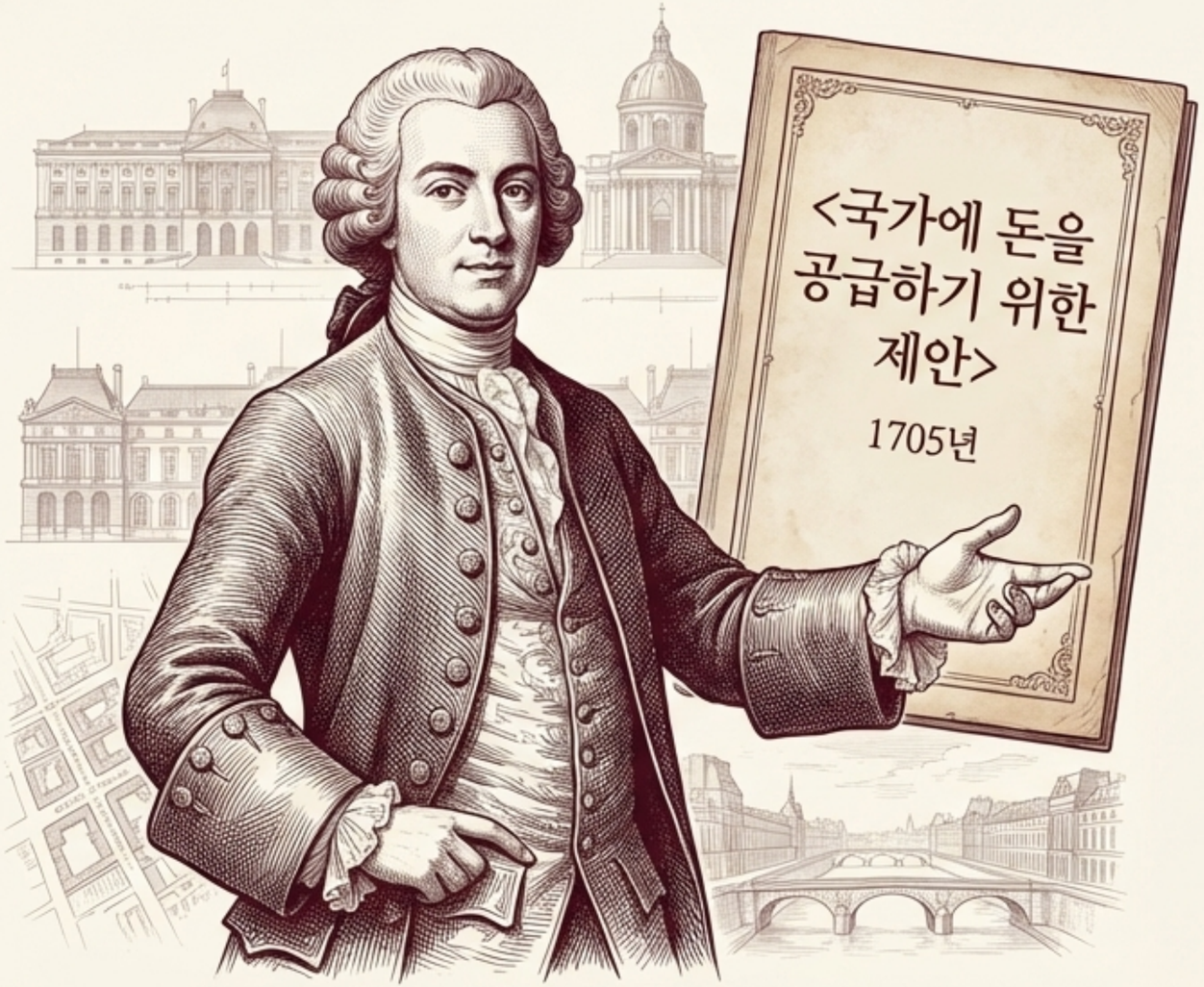
1715년,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5살의 루이 15세가 왕위에 오르자, 프랑스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가 피어날 토양이 되었습니다.

1714: 전쟁 종결

1715: 루이 14세 사망

NotebookLM

구원자로 나타난 천재 도박사, 존 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존 로(John Law)가 등장합니다. 그는 1705년 <국가에 돈을 공급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시대를 앞서간 주장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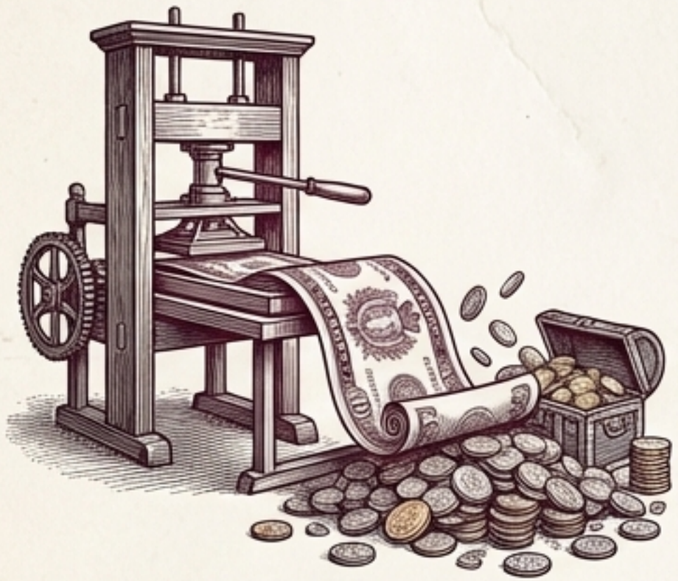
> **그의 핵심 아이디어:**
> **"국가의 부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니라, 활발하게 유통되는 돈의 양에 달려있다."**

그는 프랑스 섭정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빚을 갚는 것을 넘어, 프랑스를 유럽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Notebook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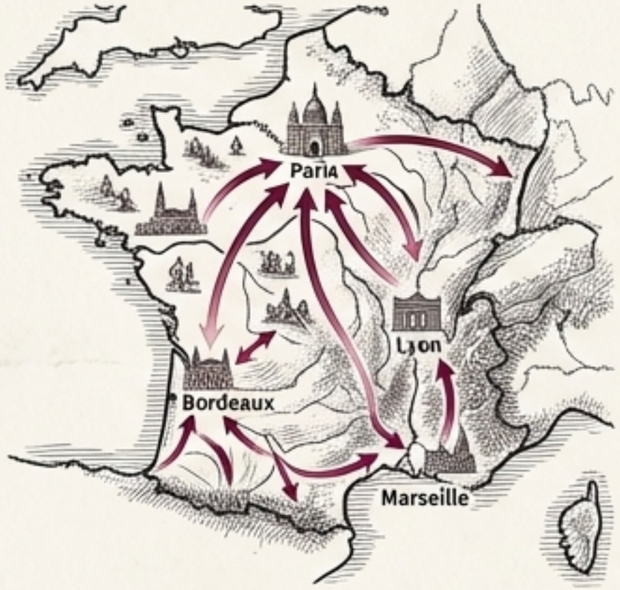
프랑스를 구원할 존 로의 3단계 계획

존 로의 계획은 세 가지 혁신적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 화폐 혁명

금과 은을 대체하는 '종이 화폐'를 발행한다.
(중앙은행 '방크 제네랄' 설립)



2. 경제 활성화

시중에 통화량을 급격히 늘려
상업과 투자를 촉진한다.



3. 성장주 창출

국가가 보증하는 독점 기업을 만들어,
모든 투자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 국가 부채는 해결되고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청사진이었습니다.

NotebookLM

‘현금은 쓰레기다’: 통화 팽창의 마법



존 로 시스템의 핵심은 ‘신용 창출’이었습니다. 은행은 보유한 금의 양보다 훨씬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 예시: 은행 금고에 1억 원 가치의 금이 있다면, 10억 원의 종이 화폐를 발행합니다.
- 논리: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통화량이 급증하자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기보다 어딘가에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투자를 부추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은 쓰레기(Cash is Trash)’가 되는 순간입니다.

NotebookLM

모든 욕망이 집중된 단 하나의 회사: 미시시피 회사



늘어난 통화가 흘러 들어갈 완벽한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존 로는 '**미시시피 회사(Mississippi Company)**'를 그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회사의 약속: **프랑스령 루이지애나(북미) 지역의 무역을 독점**하고,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채굴**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한한 성장에 대한 기대로, 미시시피 회사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핫'한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돈이 이곳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NotebookLM

1년 만에 20배 폭등: 광기의 절정

대중의 열광은 미시시피 주가를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상승세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단 1년 만에 20배가 폭등하자, 프랑스인들은 물론 유럽 전역의 투자자들이 '나도 미시시피 주식 한 주만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NotebookLM

주식으로 국가의 빚을 갚다

미시시피 주가의 정점에서, 프랑스 정부는 기막힌 한 수를 둡니다.
부채-주식 교환: 15억 리브르 규모의 미시시피 신주를 발행하고,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채'로만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프랑스 국채 (가치 하락)



투자자들의 교환

미시시피 신주 (가치 폭등)



사람들은 가치가 폭락하던 국채를 던지고 폭등하는 미시시피 주식을 얻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루이 14세가 남긴 20억 리브르의 빚 대부분이 사실상 소각되었습니다.

NotebookLM

모두가 '무엇을' 살까 고민할 때, 그는 '왜' 오르는지 질문했다



이 거대한 광기 속에서 리처드 캔틸런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 로의 통화량 증발 정책이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공식을 의심했습니다.

기존 공식: 가격 = 수요 + 공급 (50점)
캔틸런의 통찰: 가격 = 수요 + 공급 + ???

그가 발견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이었을까요?

NotebookLM

캔틸런의 발견: 돈은 평등하게 흐르지 않는다



캔틸런이 발견한 비밀은 바로 '통화량'과 그 '흐름의 순서'였습니다.

핵심 원리 (캔틸런 효과):
"새롭게 늘어난 돈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자산의 가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오른다."
(The asset where the increased money supply flows into first.)

통화량이 늘어나면 모든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주입되는 지점과 가까운 곳부터 순차적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부의 이전은 바로 이 시차에서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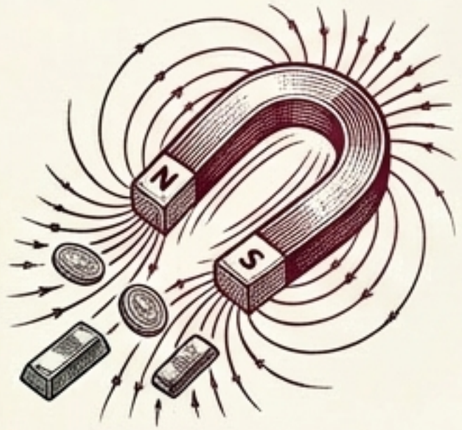
NotebookLM

무엇이 '핵심 자산'이 되는가?

캔틸런처럼 부를 얻으려면, 돈이 가장 먼저 흘러 들어갈 '핵심 자산'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자산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1. 공급의 제한: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없다.



2. 견고한 수요: 모두가 갖고 싶어 하지만 가질 수 없고, 가진 사람은 팔려 하지 않는다.

현대적 예시: 서울 강남의 부동산



통화가 풀려도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없습니다 **(공급 제한)**.

모두가 원하지만 소수만 가질 수 있고, 소유주들은 팔 이유가 없습니다 **(견고한 수요)**.

NotebookLM

완벽한 퇴장: 언제 팔아야 하는가?

캔틸런은 돈의 흐름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순서:



핵심 자산 (미시시피 주식)
가격 폭등

돈이 흘러넘쳐
주변 자산으로 확산

생필품(CPI)
가격 급등

1719년 12월, 캔틸런은 생필품 가격이 1년 만에 2배나 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돈의 흐름이 끝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보고, 보유했던 미시시피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실물인 '금'으로 바꾸었습니다.

NotebookLM

그리고 모든 것은 무너졌다



캔틸런이 떠난 후, 버블은 붕괴했습니다.

- 주가 폭락: 1년 후, 1만 리브르였던 미시시피 주식은 500 리브르로 추락했습니다 (1/20 토막).
- 존 로의 몰락: 프랑스 재무장관까지 올랐던 존 로는 '사기꾼'으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 투자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프랑스 경제는 수십 년간 후퇴했습니다. 캔틸런의 통찰력은 그를 파멸에서 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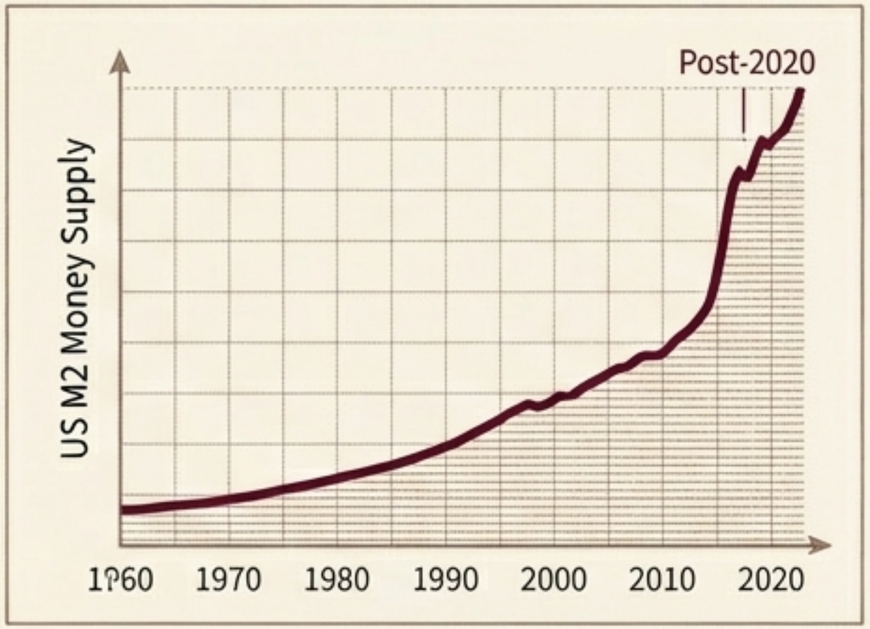


존 로

NotebookLM

3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원리

캔틸런 효과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통화 팽창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미국이 막대한 돈을 풀자,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등 핵심 자산의 가격이 가장 먼저 급등했습니다.
- **현재 중국의 부양책:** 중국은 다양한 방식(QE, TAF 등)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 돈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라는 명제는 통화 팽창기 투자의 제1원칙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NotebookLM

돈을 찍어내는 '형태'는 바뀌어도,
돈이 흘러가는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과거의 종이 회폐 발행부터 현대의 양적완화(QE)에 이르기까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은 더욱 세련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늘어난 통화량은 어딘가로 흘러가고, 그 돈이 기장 먼저 도달하는 자산을 아는 것이 부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가격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넘어, 돈의 흐름과 그 '순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300년 전 캔틸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NotebookLM